



靑松과 단풍 어우러진 '숲의 바다'

경남 김해에 있는 파사석담(婆娑石澗)은 가야불교사의 블랙박스이다. <삼국유사> '파사석담' 조에 "...수로왕의 비 허황후(許皇后) 황옥(黃玉)이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 갑신(甲申; 48년)에 서역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배에 싣고 온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삼국유사>는 수로왕 8대손인 가락국 집지왕이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452년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王后寺)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가야의 불교 공인이 파사석담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야의 사찰 창건설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다. 허황후와 함께 입국한 오라버니 장유화상(長遊和尚)이 가야 땅 여러 곳에 절을 짓고 전법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해 은하사도 화상이 세운 가야고찰 가운데 하나이다.

은하사 '취운루 중수기'에 따르면 장유 화상이 수로왕의 명을 받아 은하사를 창건하였다. 은하사 대웅전 수미단에 있는 쌍어문(雙魚紋)은 인도 아유타국의 전통 문양으로, 그곳의 사원에 어김없이 장식되고 있다 한다. 은하사가 자리한 '신어산(神魚山)'이라는 지명도 예사롭지 않다.

솔숲 주차장에서 왼쪽으로는 은하사로 오르는 길이 열려있고, 오른쪽으로는 동림사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생태탐방 코스는 은하사-천진암-출렁다리-정상-철쭉능선-동림사가 무난하다.

산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연못이 있다. 갈수기 댕긴지, 부들과 갯버들 등 수변식물만 무성할 뿐 바다는 정자 말라있다. 그 메마른 연못 가운데 관음보살상이 서 있는데, 신성(神性)을 무시한 채 불보살상을 조경물로 난립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은하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3단의 넓은 석단 위에 전각을 앉히고 있다. 후대에 전각들이 여기저기 연이어 세워지면서 가람배치가 다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종루의 기둥은 메타세쿼이아이다. 수

피만 벗기고 요철의 근육질을 그대로 살렸지만,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 나무가 미국에서 들어온 외래나무이기 때문이다. 수형이 곧고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서 사찰 주변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사찰 고유의 전통경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웅전 뒤로 비껴 가면 취운루를 만난다. 그 앞에 아담한 연못이 있는데, 연꽃 심을 연지(蓮池)로는 규모가 작지만, 연지(影池)로는 위치와 크기가 부족함이 없다.

연못 위에 워터레터스가 떠 있다. 연녹색 잎이 배추와 비슷하여 '물배추'로 불리는 이 부유식물은 아프리카가 원산지다. 담수 특한 털뿌리가 수중에 떠 있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물고기들에게 산란처와 은신처를 제공해 주지만, 외래종이기 때문에 전

들평나무 열매 주요 새 먹이 용담·구절초 등 야생화 다수

통사찰 연못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

은하사에서 천진암으로 가는 길은 소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여러 종류의 활엽수들이 혼효립을 이루고 있다. 은하사에서 천진암으로 가는 계곡 주변, 동림사 뒤편 산기슭 등에서 다양한 활엽수들을 볼 수 있다.

생강나무는 봄에 꽃도 일찍 피우지만, 가을에 단풍도 먼저 물든다. 예전에는 절에서 나무의 기둥으로 등불을 켜기도 했다. 어린잎은 말렸다가 차를 우려 마셨다고 한다.

가을이면 열매가 주홍색으로 익는 들평나무 열매는 겨울철 양식 없는 산새들에게 중요한 요거터이다. 들평나무는 중부 이남에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으로 높이는 2m 안팎이다. 줄기가 여러 개로 갈라져 포기를 형성하고 어린 가지에 성모가 촘촘하다. 잎은 마주나기하고 긴 타원형이다.

짜리는 콩과식물이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짜리나무 가지를 '재'라고 하는데, 재반이나 채독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짜리 가지로 만든 것이다. 옛 기록에, 짜리 가지로 만든 불상(籠佛)도 있었다고 한다. 신어산에는 작은 가지와 잎에 털이 있는 털진달래가 진달래보다 더 많다. 비슷하게 생긴 흰꽃나무도 많다. 신어산 정상 부근에는 억새밭과 함께 수전병의 철쭉군락이 있다. 정상 부근이라서 철쭉의 키들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5월이면 신어산 철쭉제가 열린다.

산행길 오른쪽으로 신어산 남사면이 눈맛 좋게 펼쳐진다. 이때쯤 사면에 절리(節理)된 화강암 암봉들이 보인다. 절리가 무너져서 이루어진 너털지대도 몇 곳 보인다.

신어산 야생화로는 용담을 비롯하여 닭의장풀, 개솔부쟁이, 구절초, 산국, 애기똥풀, 고마리, 말봉선, 갈퀴나물, 산부추, 꽃향유, 이고들빼기, 이삭여귀, 질신나물, 익모초, 산박하, 마타리, 들갈나물, 미역취, 까실쑥부쟁이, 개망초, 영경귀, 지청개 등이 있다.

용담은 주로 산자락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키는 50cm 정도이며, 줄기에는 가는 줄이 있다. 잎은 마주나고, 종처럼 생긴 꽃은 가을에 줄기 끝에 핀다. 꽃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자주색이며, 꽃부리는 5갈래로 조금 갈라진다. 재배하기가 까다롭지만, 사찰 조경에 훌륭한 초본이다. 닭의장풀은 가을 늦게까지 푸른 꽃을 보여준다. 오존량에 따라 보라색을 띠기도 한다. 줄기는 옆으로 자라고 줄기마디에서 새로

자라는 단풍 드는 계절에 꽃을 피운다. 때때로 동림사 무문관 앞마당에 차나무꽃이 환하게 피었다. 알뜰검은표범나비 한 마리가 꽃에 앉아 미동도 없이 꿀을 빨고 있다. 가을 나비로는 네발나비, 청피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빨나비, 노랑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정상 부근 억새밭에서는 방아개비를 비롯하여 몇 종의 메뚜기가 관찰되었고, 은하사와 동림사 주변에서는 고추잠자리, 깃동잠자리, 박각시 등이 보였다.

단풍 들 무렵의 신어산 조류는 뒷새들이 주종을 이룬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까치, 꿩, 멧비둘기, 직박구리,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숲새, 산솔새, 오목눈이, 곤졸박이, 노랑딱새, 참새, 어치, 까마귀 등이다. 여름철새로는 노랑할미새가 관찰되었다.

정상엔 억새밭·철쭉 군락 사찰주변 곳곳에 까치등지

은 뿌리가 나와서 번식한다. 위쪽 꽃잎 2장은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서로 마주보고 달려있다.

정상 부근에는 억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솔새, 기름새, 참새 등이 있는데, 공통점은 '날카로운 털'과 '심이 박힌 긴 잎'이다. 흔히 부르는 억새꽃은 꽃이 아니라 씨앗이다. 솥털 끝에 씨앗이 깨알처럼 붙어있다.

은하사 삼장각 들쭉대에 바위솔 하나가 때때로 자랄고 하얀 꽃들을 앙증맞게도 피었다. 자루 없는 잎이 줄기에 증축을 이룬다 하여 '탑솔(塔松)'이라는 미명도 붙어 있다. 가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전체가 말라 죽는다. 손쉬운 번식방법으로는 꽃이 피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면 포기 가 많아지므로 이때 나누어 심는다.

능선으로 난 산행로를 내려오면 천불사로 이어지고, 그 도중에 동림사 산신각으로 이어지는 토끼길이 갈라진다. 산신각 안에 모

서진 행화와 내부 전경이 훑쓸 그늘음으로 시켜왔다. 특히 산신각 뒤에 내화수림대를 두지 않아 산불호비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예로부터 유명한 김해 장군자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올 때 가져와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름에 걸맞게 몸집이 다른 차나무에 비해 크다. 조선시대에는 첫잎을 우려낸 물 빛이 황색을 띠어 김해의 차를 황차(黃茶)라 하였다. 동림사와 은하사에도 조경으로 심은 장군차나무가 있다.

차나무는 단풍 드는 계절에 꽃을 피운다. 때때로 동림사 무문관 앞마당에 차나무꽃이 환하게 피었다. 알뜰검은표범나비 한 마리가 꽃에 앉아 미동도 없이 꿀을 빨고 있다. 가을 나비로는 네발나비, 청피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빨나비, 노랑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정상 부근 억새밭에서는 방아개비를 비롯하여 몇 종의 메뚜기가 관찰되었고, 은하사와 동림사 주변에서는 고추잠자리, 깃동잠자리, 박각시 등이 보였다.

단풍 들 무렵의 신어산 조류는 뒷새들이 주종을 이룬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까치, 꿩, 멧비둘기, 직박구리,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숲새, 산솔새, 오목눈이, 곤졸박이, 노랑딱새, 참새, 어치, 까마귀 등이다. 여름철새로는 노랑할미새가 관찰되었다.

은하사와 동림사 주변으로 까치들이 많이 보인다. 까치는 날개가 짧고 둥글게 생겨서 먼 거리를 비행하지 못해서 주로 민가나 사찰 주변에 텃새로 살고 있다. 까치는 청도 운문사를 비롯해 사찰 창건설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텃새인 까치가 절터를 잡지 해주었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림사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신어산에 뱀재지, 고라니, 너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개체수에서는 다람쥐와 청설모가 앞에 선다. 요즘 다람쥐가 낙엽을 뜯어다 이 부자리를 까는 등 동면 준비에 한창이다.

글·사진·김재열(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적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유기미음

민속죽염 조상의 열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지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규칙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주머니 속의 심경 출간!!!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 중에서도 절제된 경으로 으뜸가는 경이다. 그래서 선승(禪宗)도 그 뜻을 따랐다. 이 선승이 읽는 이들을 돈오하게 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주머니 속의 심경 서문 중에서..

손바닥 만한 책이니 늘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소절씩만 읽고 참구하십시오. 격의를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융합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